

증거 자는 예수님만을 증거 하는 자다(19-28).

본문: 요한복음 1:15, 19-28

-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벳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누가복음 3:15). 그러나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일에 온전히 충성 했다 우리는 본문에서 증인으로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세례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다. 첫째, 겸손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I. 겸손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20)” “드러낸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 “숨기지 않는다”는 말까지 더 붙여 말한 것을 보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는 말이 점점 짧아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장황하게 설명 하는데 비하여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점점 말

수를 주린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접하고자 한 모든 영광을 그는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라”(23)

이 구절은 이사야 40:3-5의 인용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 .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우리는 세례요한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감추는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16:18),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베태전 5:6)고 하였다. 예수님과 사단의 가장 극명한 대조가 성경에 나온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가장 낮아 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빌립보서 2:5-11). **사단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뿔뿔 위에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셨다(이사야 14:12-15).**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본 받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하고자 하는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증거가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II.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 힘을 쏟는다.

1. 예수님은 야웨이다.

그는 내가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역점을 둔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다(23).**”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 혹은 “야웨”라는 말이다. 그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라는 말이다. 왕이요 주 중의 주가 되신 분이다.

당시에는 왕이 오기 위해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어 왕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왕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데 그 길을 준비하는 길 님이라는 말이다. 그가 어떻게 길 님의 일을 하는가?

누가복음 3: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워 지고 높은 산이 낮아 진다는 말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 진다

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란 가진 자는 오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하며 못 가진 자는 열등 감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세례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주 곧 아웨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교만을 버리고 야웨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2.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2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로서 너희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바울도 에덴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한 신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다(행 17:23).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가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티까운 일인가? 진정으로 복 된 자는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는 때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알아 보지 못하는가? 교만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못 본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들이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5)고 하였다.

3.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한다.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말한 그 사람이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 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요한 보다 절대적으로 선재 하신 분이시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1)

그는 예수님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한다.

26-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첫째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자기의 사역은 다만 싸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싸인이 가르쳐 준 참 실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가 세례를 베풀 물은 하나의 싸인일 뿐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베풀 다는 것이다. 물로 세례는 깨끗케 한다는 상징이지만, 진정으로 깨끗케 하는 능력의 세례는 메시아에 의하여 베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마가복음 1:8)

둘째 그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했다. 신발 끈을 풀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인들이나 할 일이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하인의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은 다음 부분에서 나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한복음 1:29)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어떤 평범한 인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주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본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갔다. 마음이 상한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요한에게 보고하였다.

요한복음 3: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겸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인격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미국 LA에 있는 존 맥아더 목사는 엄청나게 큰 교회 (Grace community Church)의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오직 그가 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증거자로서의 일 이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특권과 대접과 유익을 누리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세례요한과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